

광주 북구의장 사전영장

검찰, 국회의원 부인에 돈 준 혐의 '의장 선거 돈잔치' 밝혀질까 관심

검찰이 기초의회 의장 당선을 위해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현직 기초의회 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의장 당선을 위해 현 의장을 비롯한 의장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부인 J씨에게 앞다퉀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여 과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지방의회 선거과정에서 둘러싸고 제기됐던 돈살포 의혹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운)는 2일 구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부인에게 수천만원의 빚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최은호(63) 광주 북구의회 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장은 북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5~6월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부인 J(55)씨에게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의장 선거에서 떨어진 의장 후보 K씨와 J씨에게 3천만원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던 중 당선자인 최 의장도 J씨에게 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등 수사를 확대,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최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J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빌려준 것일 뿐 의장 당선을 목표로 한 청탁성 뇌물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2일 "최 의장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형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전후 진술의 맥락으로 미뤄볼 때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고 받은 뇌물의 액수가 크고, 그 대가로 의장에 당선된 혐의가 있는 만큼 최 의장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의장선거 과정에서 최 의장과 경쟁해 낙선한 K의원도 J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J씨를 소환해 최 의장과 K의원에게 돈을 받았는지와 의장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으며, J씨가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사증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J씨를 조만간 추가 소환해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혐의 입증될 경우 J씨의 남편인 국회의원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처할 방침이다.



출근길 도로 한복판 '폭삭' 2일 오전 8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극락사거리 도로 밑 송수관로가 누수되면서 지름 5m, 깊이 6m의 도로 한복판 지반이 붕괴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사고로 출퇴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에도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송수관로에서 물이 역류해 이 일대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 연고 프라임그룹 압수수색 前 정권 사정 '주목'

서울서부지검 감사5부(노승권 부장검사)는 2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프라임그룹의 서울 광진동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라임그룹이 호남지역을 근거로 한 기업이고 전 정권에서 급성장했다는 점에 비추볼 때 '전 정권 사정 수사'와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프라임그룹이 짧은 기간에 계열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시된 회계 장부와 전자사 등 자료를 확보해 계열사 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조만간 그룹 회계 책임자를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프라임그룹이 각종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세해

정지권 등에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프라임그룹은 회장인 백모씨가 전남 출신으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한 사업 확장을 해 왔으며, 호남출신 정치인들의 후원자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전 정권 사정 시나리오'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라임그룹은 주택·부동산 사업개발로 출발해 테크노마트 사업 시행, 경기 고양시의 '한류우드' 조성, 동아건설 인수를 통해 해외의 진출 등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어 빠르게 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과거 정권과의 유착설 등 각종 풍문이 나돌았다.

前 한나라당 전남도당 간부 취업 사기

7억원 가로채 잠적

전 한나라당 전남도당 간부가 취업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채 잠적했다. 그러나 고소자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 한나라당 전남도당 대변인과 지구당 위원장 등을 지난 A(60)씨가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피해자가 1명당 수천만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고소자가 최근 잇따라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총선에서 나주·화순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기도 했으며,

여대생 집단 성폭행

20대 7명 구속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2일 재즈바에서 만난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한 이모(20·광주시 북구 삼각동)씨 등 7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7월 30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R재즈바에서 만난 광주 모 대학 2년 C모(여·21)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만취해 정신을 잃은 C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사건으로 본 전공의 근무 실태

살인적 근무·비인격 대우·금전부담까지

전남대학교병원 A교수의 전공의 폭행사건(본보 2일자 7면)과 관련,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세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최 근들어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전공의 성추행, 폭행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살인적인 근무시간=가장 큰 문제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최근 국립의료원이 공개한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3.4시간에 달했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볼 때 무려 33.4시간이나 초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살인적인 근무여건으로 인해 절대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지역 모 대학병원 전공의 B씨는 "실제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은 통계상 수치로 훨씬 웃돌 것"이라며 "병원 내 간이숙소에서 지내면서 응급실 근무, 수술실 참관, 연구과제 수행을 하느라 외출은 꿈도 못꿈다"고 말했다.

◇인기있는 과가 더 힘들어=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신경외과 등 소위 인기과에 가려는 전공의 지원자들은 '외국비' 부담까지 안아야 한다. 1년차 신입 전공의들은 인기 과에 따라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의 외국비를 내야 한다. 이 돈은 각종 과의 행사와 회식 등에 사용된다.

모 대학병원 전공의 C씨는 "인기과를 선택하면서 외국비 500만원을 내지 못해 과를 떠나는 동료들 봤다"며 "인기과일수록 폭행·폭행이 많고, 돈도 많이 든다"고 현실을 전했다.

◇비인격적인 대우는 일상=전공의들은 살인적인 근무보다 더

다 좋은 건국·산업자금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저렴 및 상당량**

▶ 서울지사 : 02) 3445-0943
▶ 나주공장 : 061) 337-0571

충진차에 사람 매달고 30분 간 질주

○광주북부경찰은 2일 충진차량에 사람을 매달아 달아난 박모(20)씨에 대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께 북구 용봉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소모(33)씨의 산타페 승용차를 훔친 뒤 소씨의 선배 양모(40)씨를 보닛에 매단 채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

○박씨는 지난 1월 북구 두암동 S 대형할인유통매장 앞길에서 충진 차량을 몰고 가다 이를 본 양씨가 차를 가로막자 그대로 돌진해 양씨를 보닛에 매단 채 30분 동안 운전하고 다녔는데, 경찰에서 "양씨를 떼어내려 했으나 끈질기게 매달렸다"고 진술.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뒤 도망가던 박씨를 추격해 검거.

대한민국대표·총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Tour.com

1577-3000

광주지사: 062-226-2601(구 도청 앞)

2008 한국서비스대상 6년 연속 대상수상!

중국 가을여행 Best 4 상해·황산·장가계·계림

상해, 황주, 소주 4일 w479,000~579,000

상해, 황산, 항주 5일 w659,000~759,000

상해, 장가계, 원가계, 항주 5일 w989,000~1,139,000

상해, 계림, 용승(온천욕) 5일 w889,000

추석특선 인천출발

일본

중국

홍남야

미중, 유럽, 남태평양

등남야 인천출발

크루즈 인천출발